

“원불교와 인격교육”에 대한 논평

최 무 석

(경상대학교)

김교수의 원불교와 인격교육의 논지에 공감한다. 그런데 그의 글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관련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제안이 언급되지 않아 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는 80년 전에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른 문제를 예견하고 원불교를 창립하였다. 그는 현하 과학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해져서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고해의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이 개교의 동기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세상이 병들었다고 진단하고 병을 치료할 처방을 제시했다.

지금 세상은 첫째는 돈의 병이니,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함에는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倫氣가 쇠해지고 情誼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는 곧 큰 병이며, 둘째는 원망의 병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을 생각하여 서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라 하였고, 셋째는 의뢰의 병,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여섯째는 公益心 없는 병을 예견하였다. 그리하여 그 병을 치료할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의품 35장에서 “지금 세상의 이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四恩四要와 공부의 요도인 三學八條라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 보살이 되어 다시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 노소가 다 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 하였다.

김교수의 인격교육의 과정 (제Ⅲ장, 제2절)에서 보듯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신앙과 수행이 요청된다. 원불교의 수행은 훈련법에 특징이 있다. 훈련법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이 있는 데 정기훈련법은 靜할 때 三學工夫이며 상시훈련은 動할 때의 三學工夫인데 이 두 가지 훈련법을 통해 동정간 삼학을 병진하도록 한 표어가 바로 無時禪 無處禪이다. 이는 인격교육을 일상 생활을 통해 간단없이 실현하여 생활과 수행을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훈련이라는 말은 서구의 training과 같은 맥락의 뜻도 있지만 포괄적인 인격교육으로 보아야 한다.

토론자는 오늘날의 사회의 도덕적 타락 현상과 관련하여 건전한 인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종교가 연대하여 인격교육의 이론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검토해 볼 것을 종교교육학회에 제안한다. 세계가 점차 하나로 되어 가는 시대에 맞추어 각 종교간에도 울을 트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종파성 교육에서 벗어나 종교성 교육을 위해서도 연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연구가 진척되면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종교 단체뿐 아니라 학교나 사회교육 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종교간의 연합된 인격교육 기관이 활성화되면 프로그램의 제공뿐 아니라 훈련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